

전남 농민 65세 이상 절반 돌파 고령화 심화 '지역 전통산업' 위기

임가도 52% 고령층...노동집약산업 한계 어가 인구 감소율도 전국 세 번째로 높아 청년 유입 제한적 생산인력 세대교체 절실

전남지역 농민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전통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임가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여서 노동집약적 1차 산업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남의 농가 인구는 28만16천7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8만60명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임가 인구도 3만256명에서 3만133

57명으로 3.6% 늘었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임업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 증가와는 별개로 고령화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16만1천899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임가 역시 1만6천188명으로 51.6%에 달해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분야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남 어가 인구는 2020년 3만5천357명에서 지난해 12월 3만1천357명으로 12.1% 감소했다. 이는 제주(18.8%), 부산(16.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만3천464명, 43.3%로 농업과 임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가 규모는 여전히 전국 상위 5개 시군 가운데

전남이 3곳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완도 3천526가구, 여수 2천483가구, 신안 2천270가구로 전국 1-3위를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완도 3천262가구(1위), 여수 2천992가구(2위), 신안 2천212가구(5위)로 재편됐다. 이처럼 생산인력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생산성과 직결되면서 지역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임업은 여전히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만큼 고령 인력 중심의 구조는 생산 효율 저하와 기술 전승 단절, 경영 지속성 약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산인력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안태호기자

에너지 전환 정책 수혜주 관심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4월22일~4월28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5%, 코스닥은 3.1%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개인이 1조5천억원 순매수, 외국인은 2조원가량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특별한 수급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지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도 하이닉스의 강세가 뚜렷한 한 주였는데 삼성전자는 한 주간 1%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하이닉스는 6.5%가량 급등했다. 전주에 하이닉스 실적발표 이벤트가 있기도 했고 D램 등 범용 반도체가 현재 좋지만, 하반기 HBM, TPU 등 AI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 전망에 관련 기술력을 더 인정받고 있는 하이닉스에 매수세가 더 붙는 모습이다. 지수 신고가 경신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 미국 시장이 AI 수혜주 중심의 상승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나스닥이 4주 연속 강하게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주간 31% 이상 올랐다. 반등 과정의 디테일을 곱씹어보면 지난 한 달간 S&P500의 상승률이 9%가량인 반면 총 11개 섹터 중 이를 앞서는 섹터는 IT와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단 3개로 한정된다. 그중 시총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IT섹터가 22.8%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빅테크가 신고가 팰리를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발맞춰 국내 증시도 AI→반도체→전력기기/원전의 낙수 효과 기대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6,600pt를 돌파한 상황이다. 미-이란 전쟁의 평화적 종료를 위한 협상 테이블은 결국 이번 주에도 마련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시장은 새로운 게 없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오히려 전쟁으로 가시화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혜주에 관심이 커져가는 모습으로 한국의 배터리, 신재생에

너지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업황 사이클은 2027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밸리에 따른 부담은 떨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지수 자체는 50일까지는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 시장은 횡보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뉴페이스를 찾을 것이다. 필자는 풍력주가 그중 하나가 될지 않을까 생각한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취약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오랜 기간 값싸고 안정적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해왔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유럽연합은 기후 정책의 선도자로 평가를 받아왔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동 의존도를 높였지만, 이번엔 이란 전쟁이 터지며 그 대체경로마저 차단됐다. 결국 이번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란 전쟁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 트립프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을 때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스스로 구하라고' 각국에 경고했다. 당장에 천연가스다시 공급되고 유가 봉쇄가 풀리며 유조선이 자유롭게 다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발할지 모를 전쟁 리스크에 에너지 자립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공화당 및 트립프 정부는 화석 연료를 장려하며 이전 민주당 정부의 에너지 정책들을 폐기했었는데, 이 또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1월은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란 전쟁 이후 현재 트립프의 지지율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미국 유권자들의 34%만이 트립프 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으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도 8%가량 하락했고 만약 상하원이 민주당으로 모두 넘어간다면 다시금 미국 내 대규모 폭력 투자 재개가 기대된다. 국내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수혜주들이 있다. 전 세계 풍력 타워 1위 업체 씨에스윈드와 그자회사이자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베어링 전문 회사 씨에스베어링이다. 실적과 정책적 뒷받침이 모두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 가격 부담도 없는 회사들이기에 2,3분기 기대 업종으로 선정해 본다.

광주은행,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 역량 입증

국제표준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정일선 은행장 "ESG 경영 강화 최선"

광주은행은 28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강장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의 글로벌 표준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체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지속적인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증 과정에서 'ISO 45001' 및 'KS Q ISO 45001' 규격에 따른 세부 심사 항목을 우수한 수준으로 통과했으며,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동안 광주은행은 사업장 내 고객과 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일선(왼쪽) 광주은행장과 강장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임직원 대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안전 점검, 위험성 평가, 개선 조치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광주은행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안전보건 경영은 당행이 추구하는 핵심 경영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계기로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을 통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안전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만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도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환온-환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용익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 매일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대표전화 | 062-234-4576
www.haewonjungsas.com